



전시
시설
접근
영
가
의
비
전시
시설
문화
망

목차

1. 전시시설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안내 7
 - 가. 목적과 방향 9
 - 나. 특징과 주의사항 10
 - 다. 가이드 활용 방법 및 구성 11
 - 라. 전시에서의 접근성 체크리스트 12
2. 접근성 전시 기획하기 17
 - 가. 접근성을 높이는 전시기획은? 19
 - 나. 장애 유형별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19
 - 다. 접근성 전시에서 예산 항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31
 - 라. 전시기획 단계에서 주요하게 참여해야 할 인력 및 담당자 36
3. 전시 디자인 및 설치에서 접근성 고려하기 37
 - 가. 장애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9
 - 나. 작품 설치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은 무엇이 있나요? 44
 - 다. 전시 디자인 및 설치단계에서 참여해야 할 인력 및 담당자 48
4. 홍보와 마케팅에서 접근성 고려하기 49
 - 가. 홍보와 마케팅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51
 - 나. 전시 관련 출판물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60
 - 다. 홍보마케팅 단계의 주요 인력 및 담당자 61
5. 방문과 관람 : 접근성 전시 운영하기 63
 - 가. 전시 감상의 단계와 주요 인력 65
 - 나. 사전단계 : 방문 결정부터 도착까지 66
 - 다. 관람단계 : 전시 관람부터 건물을 나서기까지 72
 - 라. 사후단계 : 전시에 대한 경험 나누기와 재방문 77
6. 피드백 79
 - 가. 왜 피드백을 받아야 하나요? 81
 - 나.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할까요? 82

- 7. 참고 자료 89
 - 접근성 전시 디자인 체크리스트 (번역본) 91
 - 법적 기준과 높은 접근성의 확보 95

1. 전시시설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안내

가. 목적과 방향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증진

본 가이드는 전시시설과 관련한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관련하여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포함합니다.

전시시설과 관련한 보다 많은 관계자가 접근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전시시설 접근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진행 프로세스/업무별 주요 고려사항 및 해결방안의 제시

일차적으로는 미술관, 박물관 등 작품(유물)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공시설과 관계자들(특히 전시를 기획하는 학예사 중심으로)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지만, 그 범위를 사립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의 민간 전시시설로 조금 넓혀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차원의 접근성을 넘어 전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따른 접근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전시공간 조성 and 교육, 홍보까지 전시가 진행되는 주요 프로세스에 따라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며, 각 상황별로 어떤 대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공유하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지속적인 접근성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될 수 있는 동기 제공

이 가이드는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지라기보다, 낯선 도시에 도착하여 펼쳐보는 지도처럼 이 가이드를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듯이, 전시시설 접근성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점차 더 넓게 확산, 공유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ICOM 등 국제적인 기관과 많은 국내외 전시시설에서 접근성과 포용성, 다양성 등 전시시설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지역과의 관계성, 지속가능성 등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접근성 가이드를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전시를 기획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박물관 정의, 2022

ICOM은 15년 만에 새로 정의된 박물관의 기능과 개념을 공표하였으며 국내외 국공립 기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박물관 정책 및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 1]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박물관 정의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이다.

A museum is not-for-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that researches, collects, conserves, interprets and exhibit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

Open to the public, accessible and inclusive, museum foster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They operate and communicate ethically, professionally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fering varied experiences for education, enjoyment,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

나. 특징과 주의사항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체크리스트

본 가이드는 지침이나 규정이라기보다는 생각해야 할 것, 고려해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가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을 고려하고 더욱 신경써야 하는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용

본 가이드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들은 특정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가깝습니다.

각 전시 시설별 상황, 전시기획 과정에서의 환경 등에 따라 선택과 시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이드 활용 방법 및 구성

각자의 업무 분야에 따라 적용

본 가이드 전시시설에서 전시에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접근성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위한 것이 아닌 학예사, 전시안내원, 에듀케이터, 도슨트, 시설관리 담당자, 행정 담당자 등 예산 집행부터 전시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논의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각자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변화 또는 진화시킬 때, 가이드의 완벽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피드백과 공유

가이드를 활용하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모두가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이에 대한 확산을 고려한다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가이드를 활용하면서 축적되는 피드백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다면 지속성 있는 가이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이드의 구성

이 가이드의 주요 구성은 크게 두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시를 기획하는 흐름에 맞춰 ‘접근성 전시 기획하기’, ‘전시 디자인 및 설치에서 접근성 고려하기’, ‘홍보와 마케팅에서 접근성 고려하기’와 두 번째로 관람객의 여정에 따른 전시시설 방문 전, 방문과 감상 그리고 방문 후로 구성된 ‘다양한 관람객

시선에서의 전시 감상 여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접근성 전시의 '피드백'과 '체크리스트' 등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 전시에서의 접근성 체크리스트

접근성 체크리스트의 중요성

접근성 높은 전시를 위한 고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와 대상, 이슈들이 복잡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의 개념부터 실제 전시 프로그램에 적용까지의 과정은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성을 조금이라도 체계화하고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체크리스트입니다. 복잡하고 얽혀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접근성 높은 전시를 위해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우리 전시시설이, 우리 전시가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보일 수 있습니다.

접근성 체크리스트의 범위와 대상

접근성과 관련한 이슈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체크리스트 역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정해 본다면 '공간과 설비, 기획과 운영, 인력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과 설비는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된 기준으로 전시시설의 건축 단계부터 전시를 위한 공간의 구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술과 장비까지 포함됩니다.

기획과 운영은 전시시설의 운영정책부터,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와 마케팅의 수단, 각종 감상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술과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더 넓게는 관련 지원 정책까지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인력구성 영역은 공간 및 설비와 기획 및 운영에 실제로 참여할 사람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공간 및 설비와 기획 및 운영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의 유무, 인력이 가진 접근성 관련 역량의 수준, ‘공간과 설비’와 ‘기획과 운영’의 효과적인 결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인력구성의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표 1] 전시시설과 전시를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

구분	세부 구분	내용
공간과 설비 (Hardware)	법적 요건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관련 법률에 따른 통행로, 경사, 주차구역, 내외부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성 관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인테리어가 반영되어 있는가? (단차가 없는 공간, 유선형의 인테리어 등)
	채광성	자연광 확보, 장애인의 시각, 청각에 보완될 수 있는 환경인가? 동시에 전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채광 설비(자외선 차단 등)가 가능한가?
	면적 적정성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보행 약자를 고려한 각 실별 면적 규모는 적절한가?
	건축음향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 사용 시 적절한 건축음향적 환경인가?
	동선	가급적 수평 이동 중심으로 계획되었는가?
		비상대피시 적절한 대피가 가능한 동선 구조인가?
		주차장/대중교통 연결 시 동선상의 문제가 없는가?
		눈, 비등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동선 환경인가?
		안내견, 보행보조장치 등의 활용에 적절한 동선인가?
		직원용 접근 동선의 접근성은 적절한가?
	전시공간 및 작품 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작품 설치 높이 및 라벨 높이가 고려되었는가?
	사인물	접근성을 고려한 사인물이 있으며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보강설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각종 보조 및 보강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성을 고려한 위치에 구성되어 있는가?
	사무공간	접근성을 고려한 사무공간의 구조와 환경인가?

구분	세부 구분	내용
기획과 운영 (Software)	정책/전략	해당 시설에 접근성 관련 정책과 전략이 있으며 적절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기획과 구성	전시기획 단계에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전시의 콘셉트, 기획, 작가, 작품 구성 등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전략상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 전략이며 내용상 관련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표현을 반영하고 있는가?
	매뉴얼	시설의 운영 상황별, 전시기획 단계별 접근성 관련 이슈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설비 운영	각종 지원 설비의 운영에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설비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이 최신 상태인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용의 편의(예약/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피드백	접근성과 관련한 적절한 피드백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영과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인가?
인력구성 (Human-wear)	인력의 배치	접근성과 관련한 총괄적인 책임과 운영이 적절히 배정되어 있거나 해당 전문 인력이 있는가? 해당 인력을 통해 접근성과 관련한 정책과 운영이 적절히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직무와 역량	시설의 구성원, 전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접근성과 관련한 이해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각 직무별 접근성과 관련한 직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효과성	각 접근성 관련 직무와 인력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가?

2. 접근성 전시 기획하기

가. 접근성을 높이는 전시기획은?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접근성은 무엇인가요?

전시시설에서 접근성을 더욱 잘 적용하려면 전시에 대한 기획과 방향을 논의할 때부터 접근성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접근성이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지 않아 이미 정해진 준비 기간과 예산 속에서 접근성을 급하게 도입하게 된다면 학예사, 행정 담당자 등 기관 관계자 모두가 두 세배로 힘든 여정을 보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도입한 전시는 기존에 준비하는 전시보다 조금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 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시기획 단계에서 어떤 접근성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전시기획

전시기획에서부터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전시기획 과정은 대개 전시 시작 약 1년 전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기획에 앞서 관련된 많은 리서치와 고민을 기반으로 전시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기획서 작성 등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시 주제/의도, 작가 및 작품 선정 등의 부분은 큐레이팅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접근성 전시 기획하기’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람객을 타겟 관람객으로 선정했을 때 전시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 지점, 전시기획에서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 항목과 일정 등입니다.

나. 장애 유형별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전시 내용과 의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전시기획 단계에서 좋은 전시 주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시간을 내어 전시시설에 온 다양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준비한 좋은 전시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려면 기존 전시 예산 항목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 유형을 위한 전시 감상을 돕는 도구와 방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번 전시의 타겟 관람객 유형’을 누구로 할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단계씩 도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총론에서 안내해 드린 장애 유형 기준 중 시각, 청각, 발달, 그리고 중복장애 순으로 어떻게 전시 의도와 내용을 잘 전달하여 감상을 도울 수 있을지 설명하겠습니다.

본 파트에서 최대한 다양한 접근성 지원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안내해 드리는 방법만이 접근성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시도 속에 색다르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전시 감상을 돕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접근성은 무엇일까요?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시설에서 창의적 접근성 지원이 누구보다 필요한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가 아닐까 합니다. 전맹인과 저시력자에게 전시 내용을 전달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점자로 된 작품 설명뿐 아니라 큰 글씨로 된 자료, 청각과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읽고 느낄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큰 글씨 자료의 경우 말 그대로 큰 글씨로 쓰인 활자 자료입니다. 일반 문서에서 사용되는 글자 크기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큰(약 20포인트 이상(A4 판형 기준)) 글자 크기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자가 전시에 대한 내용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겪는 노인 등도 쉽게 전시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점자 자료는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작품 옆에 주로 놓이는 전시 캡션 등의 경우 점자로 제작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캡션 등을 점자로 제작할 경우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가까이 다가가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주로 전시 리플렛/팜플렛 등의 전시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위주로 제작하며, 전시정보 자료 제작 시 점자로 된 자료가 필요한 관람객을

위해 충분한 양을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한 양의 점자 자료 제작이 어려운 경우 질 좋은 종이로 적은 부수를 제작하여 점자로 된 자료가 필요한 관람객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점자 제작의 경우,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20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에서 점자 표기법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진행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나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기간의 경우 내용과 분량에 따라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청각 자료로는 시각적인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 및 해설해 주는 방식으로 전시된 작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등 형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음성해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작품의 형태나 모습만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배경 등의 스토리를 함께 녹여 구성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시시설에서 제공하는 작품의 의미 등을 설명하는 오디오 가이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디오 가이드는 작품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시각장애 관람객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 자료 제공 시 별도 대본을 제작하여 녹음하는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후 이것을 제공할 때 전용 기기나 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 기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QR코드 등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도 좋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성해설의 경우, 해외의 경우 미술관과 박물관의 학예인력 중심으로 시각장애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자체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미술관과 박물관 또한 학예실 중심으로 음성해설을 진행하고자 하는 흐름 등이 있습니다. 학예실 내부 학예인력으로 음성해설 대본 등 작업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작업하기도 합니다. 특히 작품의 형태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업체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대본 작업과 녹음을 위해 작품 선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작품 설치 후 전시공간에서의 작품 위치까지 같이 설명되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 해설의 경우 쉬운 글쓰기를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쉬운 글로 된 작품 해설 작업과 연결되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기간의 경우 내용과 분량에 따라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점자와 한글 표기 병기 리플렛 제작 및 보이스 아이 적용 리플렛 사례

(왼쪽) 한글 및 점자가 함께 인쇄된 서서울미술관 전시리플렛

(오른쪽) 보이스아이 코드와 점자로 구성된 궁중문화축전 초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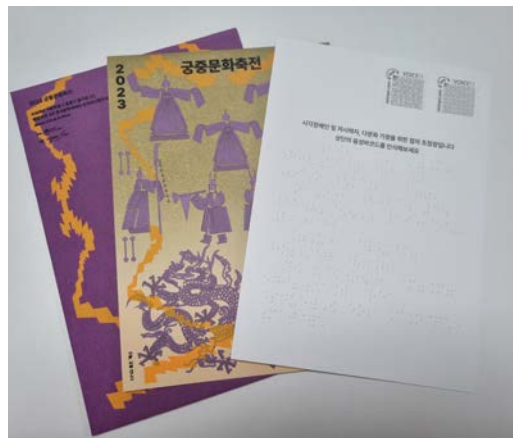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점자와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하여 초청장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그림 2]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언젠가 누구에게나'
전시 점자 리플렛, 2020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그림 3] 보이스아이 코드와 점자로 구성된 2023년
궁중문화축전 초대장



©국가유산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해설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의 전시 음성해설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글을 바탕으로 전시 공간 구성부터 작가에 대한 설명, 작품 형태와 의도 등을 폭넓게 설명해 주고 있어 시각장애 어린이뿐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 해설 사례입니다.

참고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at8oy5seAQk>

촉각 자료의 경우 전시 작품을 실제로 만지면서 감상을 돕는 방식으로, 원본 작품을 직접 만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작품 훼손 및 평면 작품 등 전시 작품의 상황에 따라 직접 만지는 것이 어렵다면 입체 모형을 제작하거나 압인 드로잉 등을 제작하는 등 작품을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모형 제작이 힘들 경우 촉각으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 가능합니다. (ex. 새를 그린 작품의 경우 새의 깃털 등 그림을 구성한 요소의 재료로 원본 작품과 비슷하게 제작함)

1)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촉각 자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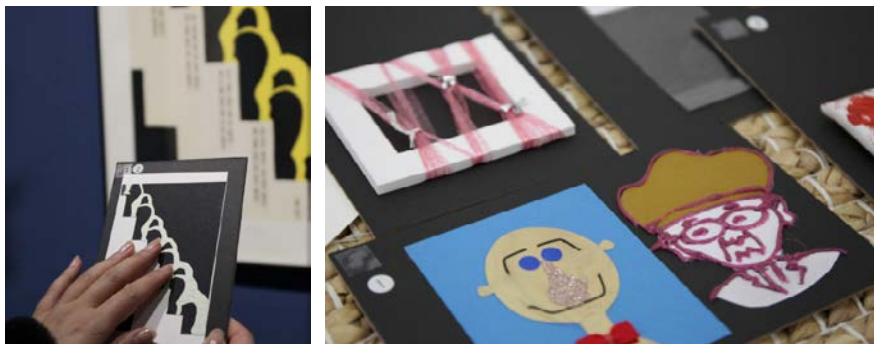
[그림 4]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촉각 전시자료



© Accessibility without limits, Rijksmuseum

2) 서울시립미술관 ‘이야기의 모형’ 촉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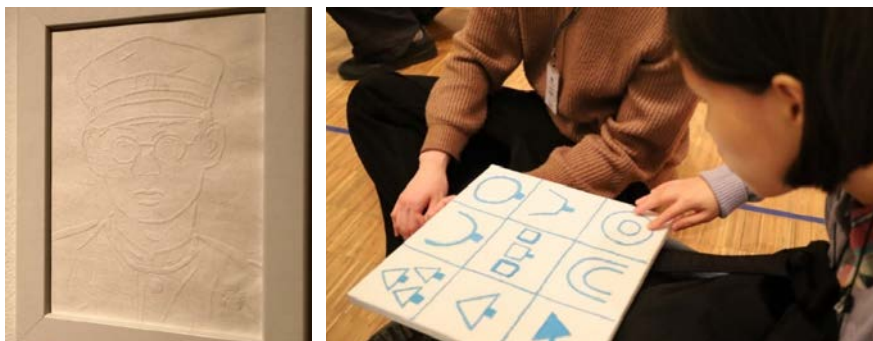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립미술관 ‘이야기의 모형’ 촉각 자료



©서울시립미술관,『미술관에 다가가갈 수 있나요?』(2023)

3) 환기미술관 압안 드로잉과 작품 촉각 자료

[그림 6] 환기미술관 촉각 전시자료



©환기재단·환기미술관

청각, 촉각 이외에 후각을 사용한 감상법을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있는 정물/사물의 향을 가져오거나 분위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상 방식은 시각장애 관람객뿐 아니라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재미있는 경험과 색다른 감상 방식을 알려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향신료로 만든 후각 자료

[그림 7]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후각 전시자료



©Accessibility without limits, Rijksmuseum

청각장애인의 전시 감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각장애 관람객의 경우 영상과 소리로 구성된 작품감상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소리와 그 범위가 다 다른,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각장애 관람객이 더 나은 전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수어로 된 내용 설명뿐 아니라 글자로 된 인쇄자료나 영상작품의 경우 자막 해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어 해설의 경우 한국 수어를 제1언어로 쓰는 농인을 위한 감상 지원 자료로 작품별 별도의 수어 영상 패널을 설치하거나 영상을 녹화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어 해설의 경우, ‘한국 수어’라고 표시할 정도로 나라마다 수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음성언어로 쓰는 한국어와도 다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어 글로 쓰인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기간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농아인협회나 단체,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등에 문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고,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일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쇄자료나 자막 해설의 경우 단순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작품 속 대사뿐 아니라 상황적 묘사가 같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글과 자막의 경우 너무 어려운 문체로 쓰여있거나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 되면 난청인에서 내용 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전시 감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쉬운 정보와 쓰기’/‘읽기 쉬운 자료’는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글을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Easy Read(쉬운 글/정보)’나 ‘Accessible information(읽기 쉬운 자료)’으로 불리는데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을 주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전시 설명, 전시 캡션 등에 전문용어나 개념어가 많이 사용되어 관람객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쉬운 정보와 쓰기’ 및 ‘읽기 쉬운 자료’로 바꾼다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더 폭넓은 관람객의 전시 이해와 감상을 도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발달장애 관람객에게도 전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정보와 쓰기’와 ‘읽기 쉬운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은 전문 업체 의뢰와 직접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할 경우 ‘총론’에 안내되어있는 ‘[별첨] 참고할 만한 자료들’ 항목에 참고할 수 있는 작성 가이드 자료를 찾아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 시 꼭 문해력이 낮은 사람(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에게 ‘검수’를 받아 읽기 쉬운 글이 적정한지 검토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문 업체에 작성을 의뢰할 경우 먼저 전시해설 내용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시 전시/교육 담당 학예사가 쉬운 글을 어떤 느낌으로 작성할 것인지, 이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 수정과 되고, 검수 등의 단계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며 그에 따른 준비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내용과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여 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달장애 관람객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자극 등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빠른 속도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발달장애 관람객에게 전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쉬운 글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미지를 같이 제공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시 내용과 연관 있는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자료 (ex. 꽃/자연과 관련된 전시의 경우 작품과 비슷한 조화 꽃이나 식물 제공/향기 키트 제공)를 기획해서 전시를 감상할 동안 옆에 두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발달장애 관람객이 전시를 집중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텐버러 아트 센터(영국 레스터)의 발달장애 관람객을 위한 감각상자

전시 주제인 ‘사진과 인물’에 맞게 사람을 관찰하고 사진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와 돋보기 등을 제공하며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손장난감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8] 아텐버러 아트 센터, 감각상자



이 감각 상자는 직접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ttenborough Centre for the Creative Arts

쉬운 글쓰기는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요?

[그림 9] 서울시립미술관, 쉬운 글 작품 해설(2022)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에 다가가요?』(2023)

왼쪽 박스의 캡션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형식의 작품 해설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작품 해설은 쉬운 글쓰기로 작성된 작품 캡션입니다.

중복장애인에게 전시 감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청각과 시각에 대한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발달과 시각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는 상황과 정도가 많이 다르므로 위의 전시 내용에 대한 접근성 방식 중 당사자 혹은 보호자가 원하는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내용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전시기획 시 장애 관람객의 입장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특정 색만 보이지 않는다면, 어려운 글과 답답한 환경을 견디기 어렵다면 등을 다양하게 상상하여 어떻게 하면 전시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시시설에서 즐거움을 얻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보다 나은 방식과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시기획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접근성이 진짜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된다면

제일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관람객에게 직접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 미술관,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통해 참여적 박물관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는 전시 감상 지원 방식들이 효과가 있는지, 보완될 지점은 없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의 보완 지점이나 방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접근성 프로그램의 발전_헨리 포드 뮤지엄

[그림 10] 헨리 포드 박물관, 접근성 프로그램 운영



©뮤지엄커넥션 제41호, 박물관 접근성:예술과 과학 및 Henry Ford museum 홈페이지

2015년, 헨리 포드 박물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처음으로 접근성을 위한 전문 직책을 만들어 접근성 프로그램 구축을 공표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터치 투어 및 가상 언어 묘사 프로그램,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감각 친화적인 행사, 그리고 치매를 앓는 사람들과 그들의 돌봄 제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약 50개의 접근성 프로그램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할 때, 환영 문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고, 장애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접근 가능한 공개 프로그램, 전시 및 공간을 처음부터 조연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장애 관련 당사자와 부모, 교사, 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과 의견 등 피드백을 받아오고 있다.

다. 접근성 전시에서 예산 항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접근성 전시기획에서 고려해야 할 예산

위에 제시한 접근성을 도입할 때 크게 고려할 예산 항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쉬운 글쓰기 제작 (외부 업체를 고용할 경우)

청각장애 관람객을 위한 영상/자막 콘텐츠 제공, 영상의 동시 자막 제작,
수어통역사 인건비(수어 영상제작 및 해설 제공 등) 등

시각장애 관람객을 위한 음성/점자 콘텐츠 제공 오디오 가이드 제작(녹음 등),
점자 팜플렛/라벨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감상 보조 자료/도구 제작 등

전시장 등에서의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에 대한 사항

내부 인력의 접근성에 대한 감수성 향상 교육프로그램 비용 등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산정에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시 예산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근성을 도입해본 경험이 있는 전시기획자들은 보통 전시기획 비용에 1.5~2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전시 디자인,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수어 통역사 고용 등의 인건비와 수어 영상 제작, 음성해설 제작 등 접근성 요소들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거기다 접근성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는 만큼 준비 기간도 길어지기에, 다른 전시보다 준비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산과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의 접근성을 적용해 볼지 전시기획의 초반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전시 감상을 도울 수 있는 접근성의 방식, 도구 등을 참고하여 기관에 맞는, 도입해볼 만한 것부터 차근차근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장애 복지관, 협회나 단체, 대학 등과 같이 지역 내 협력할 수

있는 대상들과 함께하는 방식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 사례

- 촉각 투어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A), 터치 투어(touch tour and verbal description)

[그림 11]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A), 터치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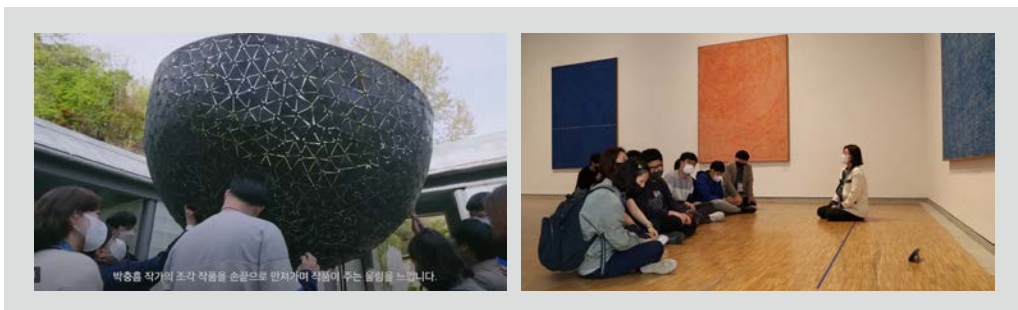


©Victoria and Albert Museum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A)에서는 1985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촉각 투어에서는 음성해설 오디오와 함께 작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작품을 만져 볼 수 있도록 일부 작품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는 접근에 필요한 동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며 모든 전시실에 큰 글자 책자를, 일부 전시실에 점자 책자를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기미술관, 뮤지엄 보이ς 시각장애인 감상 교육, ‘작품을 듣다, 작품을 말하다’

[그림 12] 환기미술관, 뮤지엄 보이ς 시각장애인 감상 교육



©환기재단·환기미술관

환기미술관은 2022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선정 전시 《뮤지엄 보이ς》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시각장애인 대상 전시 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평면 작품은 촉각 그림, 청각 자료와 같은 감각 교구를 활용하고, 조각의 경우 작품을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며 참여자가 전시를 보다 깊이 있게 느끼고 그 감상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어 투어

수원시립미술관, 수어 전시해설 프로그램

수원시립미술관은 2020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시에 대한 수어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수원시지부와 협력하여 농아인 초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녁 시간 투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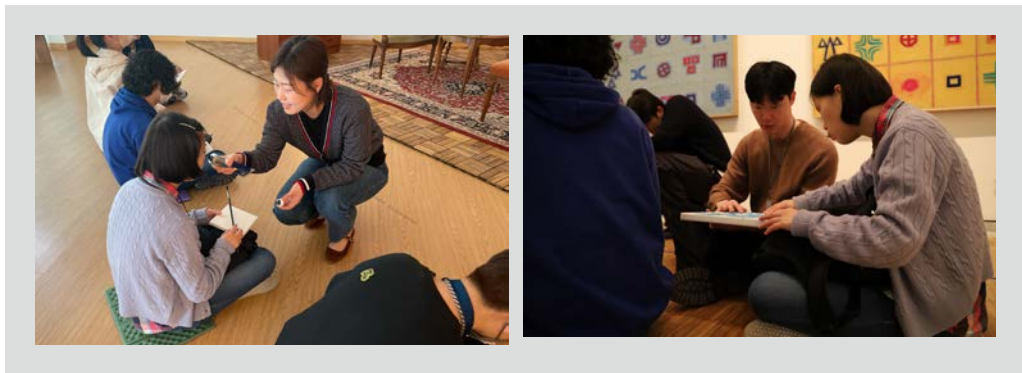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감각 친화적인 저녁 오프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뇌 손상 등 감각 처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전시공간에 사람이 붐빌 때 방문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감각 친화적인 저녁 오프닝을 제공합니다. 입장객이 적은 저녁 시간대에 전시공간의 조명을 적당히 낮추고, 직원이 속삭이듯 이야기하며,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릴렉스 존을 평소보다 더 많이 제공합니다. 감각 장애 관람객뿐만 아니라 평소 작품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작품을 감상하기 힘들던 휠체어를 탄 사람들, 작품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저시력 관람객 등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가 불편한 다른 장애가 있는 관람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환기미술관, 뮤지엄 가이드 전시 연계 시각장애인 감상 프로그램 ‘감각 프로젝트’

[그림 13] 환기미술관, 시각장애인 감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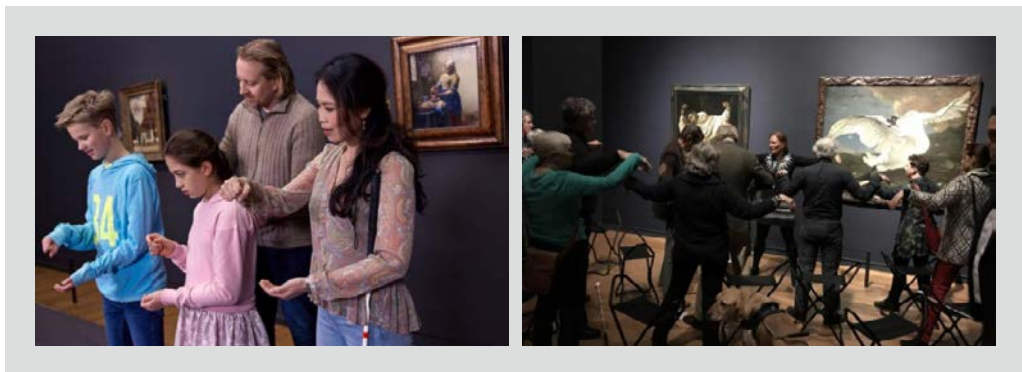


©환기재단·환기미술관

미술관 관람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감상 프로그램으로 후각, 청각, 촉각과 같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가이드 콘텐츠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이와 연계된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인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과 종로장애인복지관 등의 협력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연령의 시각장애인 참여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시각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투어

[그림 14]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시각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투어



© Accessibility without limits, Rijksmuseum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투어 프로그램으로,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됩니다. 단지 작품 설명을 해주는 것뿐 아니라 그림 속의 대상과 주인공의 동작을 “발을 오른쪽으로, 팔을 왼쪽으로”, “강력한 백조를 표현해 봅시다. 힘차게 팔을 펼쳐봅시다” 등의 방식으로 설명하며, 그림 속의 동작을 시각장애인이 직접 따라 해보면서 그림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작품의 재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를 느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교구 등을 통해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가이드 투어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 연계 프로그램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그림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프로그램

[그림 1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그림 속 주인공 돼 보기



© Accessibility without limits, Rijksmuseum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해 매년 1회 저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의 옷을 직접 만지며 감상할 수 있고 직접 입어보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라. 전시기획 단계에서 주요하게 참여해야 할 인력 및 담당자

이 과정의 주요 인력은 학예사, 행정 담당자(예산)이며 기획 단계부터 교육 담당자가 참여할 경우 교육 담당자 또한 주요 참여 인력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담당자 또한 기획 단계에서 시설 일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가능한지 아닌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시 감상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제작하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제작할 때 추가로 참여 및 동원되는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시 디자인 및 설치에서 접근성 고려하기

가. 장애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시 디자인 및 공간적(물리적) 접근성

기관마다 물리적/공간적 여건이 다르고 전시의 구성과 주제 또한 매번 달라 전시 디자인과 공간적 접근성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람객에게 다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안내해 드리는 수치와 기준들(크기와 너비 등)은 기본적인 참고를 위한 기준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정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디자인과 전시공간의 접근성 기준 및 내용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전시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프랑스문화부의 ‘Guide Exposition et Parcours de Visite Accessibles’,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의 ‘Exhibitions for All’,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의 ‘Rijksmuseum guidelines for accessible exhibition design’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물리적(공간) 접근성

전시공간을 구성할 때부터 고려되면 좋을 장애 유형에 따른 공간 요소와 물리적인 접근성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전시 공간적 요소

전시장 내부의 동선 구성과 이동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의 이동 출입구나 입체작품과 벽 사이의 넓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휠체어 하나가 지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통로 폭은 120cm 이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휠체어 한 대만 통과 가능한 넓이로, 2인 이상의 통행을 고려할 경우 2배 이상의 넓이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휠체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전시 공간 구성일 경우 휠체어 한 대가 회전하기 위해 140cmX140cm 이상의 활동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출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야 하므로 이보다 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에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테이블형으로 제작 시 안쪽으로 공간을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다리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좋으며 높이 또한 너무 높게 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약 65cm 이상, 깊이 45c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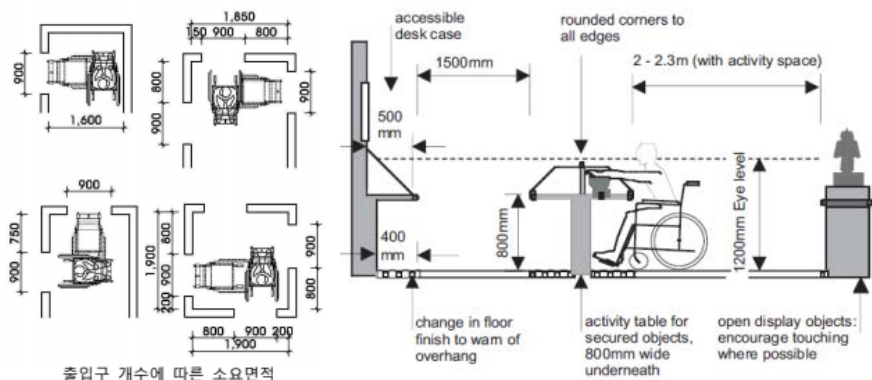
바닥에 단 차가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면 단 차에 따른 경사로 설치 등이 필요하며 2cm 이하의 단 차 일 경우에만 휠체어 사용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시공간에 미닫이문이 있다면 휠체어 사용자가 입장과 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대 당기거나 미는 힘은 약 3kg 이내이며 자동문이 아닐 경우 문 옆에 60c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휠체어 사용자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카펫, 인공 잔디, 고무 매트 등 질감이 있는 바닥재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고려

[그림 16]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 구성 상세표준도



©한국장애인개발원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전시 공간적 요소

시각장애 관람객의 경우 공간을 이동할 때 공간 파악과 갑작스러운 장애물 등을 피하고자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주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며 파악하며, 이 좌우 폭이 약 120cm 정도이나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니 대략적인 고려사항으로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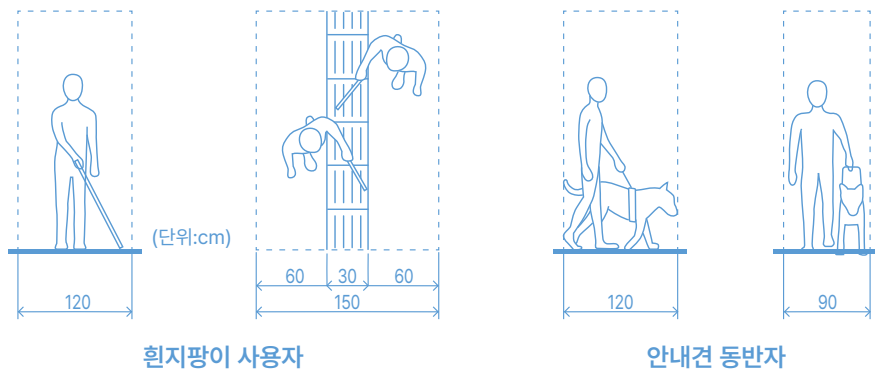
안내견과 함께 방문하는 시각장애 관람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보다 조금 앞서서 함께 이동하는데 이때 필요한 폭은 약 90cm입니다.

전시장의 입구와 출구 등 공간이 전환되는 곳에 점자블록이나 흰 지팡이로 느낄 수 있는 요철이 있는 블록 등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한 색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저시력자 관람객을 위해서 색으로 구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각장애 관람객이 처음 가는 공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장에 입장 전 대략적인 공간 구성과 내부 상황(조각/설치물에 대한 내용 및 전시장 내 공간 분할, 이동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장애 관람객에 대한 고려

[그림 17]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이동 시 필요공간



©한국장애인개발원

-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전시 공간적 요소

일부의 발달장애 관람객은 낮설고,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공간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시공간 내 조용한 공간(릴렉스 존)이나 휴식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주변환경과 잠시라도 떨어져서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작은 공간 혹은 가구를 비치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 마련이 어려울 경우 안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 차단용 헤드셋형 귀마개 등을 제공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릴렉스존 사례: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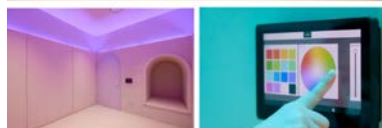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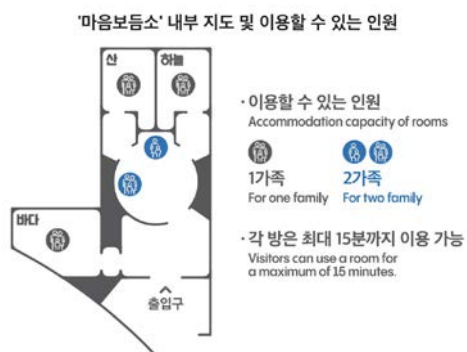
[그림 18] 국립중앙박물관 '기증1실'에 조성된 휴식공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관의 기증1실을 개편하면서 입구에 관람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라운지 형태의 공간으로 전시 동선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림 19]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마음보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내 '마음보듬소'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곳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감각 자극 때문에 전시를 관람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빛·소리 등을 조절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먼저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작품 설치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은 무엇이 있나요?

작품 설치 고려사항

작품 설치의 경우 큐레이팅의 영역으로 접근성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하면 좋은 기준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작품 설치에서 가장 고려하면 좋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입니다. 성인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는 어린이의 눈높이와 비슷하며 권장하는 눈높이 기준은 약 100~120cm입니다. 최대 150cm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 좋습니다.(6~9세의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는 약 100cm 정도입니다.)

유리장 안과 작품 진열대(쇼케이스)에 있는 입체작품의 경우 윗부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상부에 거울을 설치하면 휠체어에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게 하려고 설치되는 접근금지선(가드레일)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무릎 아래 높이로 줄바형이나 직각바형이 설치되는데, 시각장애 관람객의 흰지팡이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따라서, 흰지팡이로 인지할 수 있는 약간의 턱이나 물체, 거친 재질로 된 테이프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이때 저시력자 관람객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야 합니다.

사례: 스미스소니언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림 20] 스미스소니언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각장애인 인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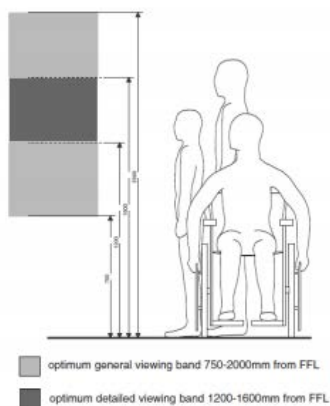


Fig. 5 Protruding Object Warning

©스미스소니언

스미스소니언의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라인(Smithsonian Guidelines for Accessible Design)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인지를 위하여 작품의 하단에 화단을 설치하여 작품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21] 작품 설치에 대한 고려



(좌상단) ©Exhibitions for All,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우상단) ©Accessibility without limits, Rijksmuseum

(하단) ©Guide Exposition et Parcours de Visite Accessibles, Ministère de la Culture

작품 명제표 글자 및 디자인에서의 고려사항

작품 명제표의 크기와 글자 크기, 폰트, 위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 명제표의 경우 모든 관람객이 읽을 수 있는 높이에 부착되어야 하며 되도록 모든 작품에 균일한 높이로 부착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 중 저시력 관람객은 큰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5~16포인트 이상이면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자 크기는 볼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권장하는 거리별 글자 크기는 1m 거리의 경우 3cm 이상, 2m 거리의 경우 6cm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벽 텍스트는 1m 이내 72포인트, 2m 이내 96포인트를 명제표의 경우 1m 이내 18포인트, 2m 이내 24~36포인트로 권장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알파벳에 대한 기준으로 한글의 경우 문서 기준으로 일반 문서에서 사용되는 글자 크기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큰 글자 크기를 권장하며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글자 폰트는 고딕체(돋움체) 계열(영문의 경우 산세리프체, 소문자 선호) 같은 읽기 편한 폰트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얇은 두께의 글씨보다 두꺼운 글씨를 우선하되 너무 두꺼운 것도 피해야 합니다.

두 줄 이상의 문장으로 표기하는 경우 줄 간격과 행 간격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줄 간격 110~120%, 행 간격 130~150% 내외로 적용합니다.

명제표의 경우 명도 대비가 70% 이상 뚜렷하게 나는 색을 추천합니다. 또한, 되도록 밝은 바탕에 어두운 글씨가 구분이 쉽습니다.

너무 얇고 작은 글씨(11포인트 이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굵은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어두운 바탕에 흰색 글씨보다, 흰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더 잘 읽힙니다.

명도 대비는 70%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비가 적으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림 22] 전시물 설명사인의 글꼴 두께 및 글자 최소 크기 예시

한국어 15	(O) 본고딕 한글 레귤러
한국어 15	(O) 본고딕 한글 라이트
한국어 15	(X) 본고딕 한글 썬
English 13	(O) Noto Sans CJK KR Regular
English 13	(O) Noto Sans CJK KR light
English 13	(X) Noto Sans CJK KR Thin

참고 : Smithsonian Guidelines for accessible design, Smithsonian
/전시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색 사용에서의 고려사항

전시공간 내의 색 선정의 경우 벽과 바닥의 구분이 명확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 관람객은 벽과 바닥의 색이 비슷하면 구분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색과 월 텍스트 및 작품 캡션 등이 명확히 보이는지, 글자들이 잘 읽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색을 사용한다든지 너무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것은 발달장애 관람객과 정신장애 관람객의 감각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에서의 고려사항

전시장 내부의 조명은 자연광 정도의 밝기가 좋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와 밝은 환경은 발달장애 관람객이 보다 편하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전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밝은 정도가 좋으며 공간의 입구와 출구 쪽이 밝아 관람객이 쉽게 출입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어두울수록 저시력자 관람객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 작품과 부딪히거나 사고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조명이 어두우면 농인이나 난청인이 독순, 수화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작품의 라벨을 읽기도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서로 볼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밝은 조명과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의 갑작스러운 밝기 전환은 시각적 자극이 커 시각장애 관람객의 혼란과 발달장애 관람객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시 작품이 밝은 조명에 장시간 노출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시간을 정하여 일정 시간에만 조명을 밝게 하여 밝은 조명이 필요한 관람객의 감상을 돕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향에서의 고려사항

전시장 및 전시 작품에 음향에 대한 요소가 있다면 갑작스러운 음향에 시각장애 및 발달장애 관람객이 놀라지 않게 사전안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중 난청인의 경우 전시장 내에 큰소리와 지지직거리는 음향 등이 있다면 사전안내가 필요합니다. 난청인 중에는 인공와우 착용이 많아 갑작스러운 소리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작품 등 음향이 많이 사용되는 전시의 경우 지속적인 음향 노출은 관람객에게 감각의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피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 의자 등을 배치하여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 전시 디자인 및 설치단계에서 참여해야 할 인력 및 담당자

주요하게 참여해야 하는 담당자는 학예사, 전시디자이너 혹은 전시 설치 업체, 그리고 미술관의 경우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입니다.

전시기획 담당자(학예사)와 전시디자이너, 전시 설치 업체 등은 작품에 대한 설치와 전시장 구성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할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하며 여기서 미술관의 경우 작가의 작품 의도와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상충할 경우 전시기획자가 작가와 이야기하여 적정한 기준과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4. 홍보와 마케팅에서 접근성 고려하기

가. 홍보와 마케팅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홍보마케팅에서 고려가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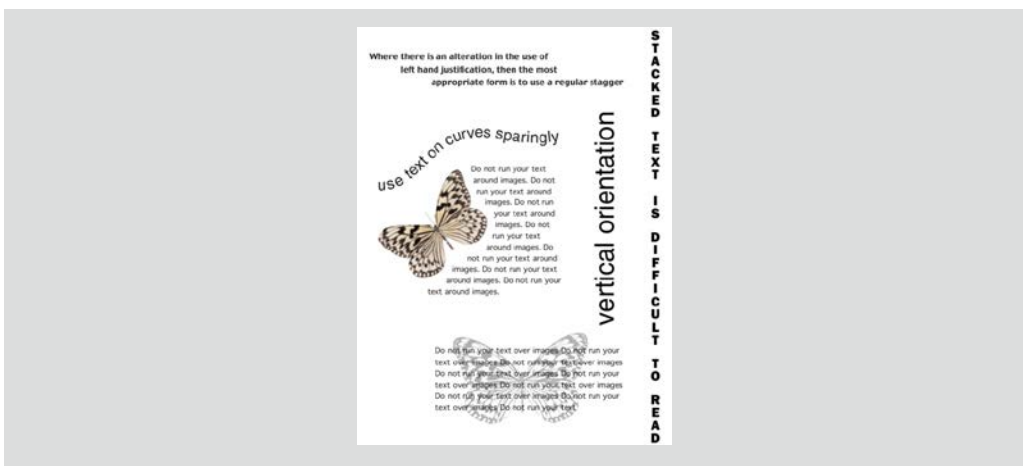
전시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홍보 매체는 오프라인형인 전시 배너 등과 온라인형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 홈페이지 등의 플랫폼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접근성 요소는 너무 복잡한 이미지와 읽기 힘든 타이포그래피로 구성된 포스터나 홍보 이미지를 조금 단순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 관람객의 경우 복잡한 이미지와 제목, 전시 일정 등 내용이 같이 겹쳐 있거나, 전시에 대한 설명과 내용 없이 이미지만 있는 자료의 경우 내용을 인지하기 힘듭니다.

색이 많이 있는 복잡한 이미지와 문자가 겹쳐 있으면 가독성이 낮아져 정보를 인식하기 힘들고 온라인상에 전시에 대한 정보가 포스터 등의 이미지로만 되어있으면 시각장애 관람객이 텍스트 음성 변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 문자의 배치에 있어 세로쓰기나 기울여 쓰기, 문장마다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다르게 하기 등을 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림 23] 타이포그래피와 아웃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Exhibitions for All,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



1) 한눈에 알아보고 읽기 어려운 전시 포스터의 예시

[그림 24] 한눈에 알아보고 읽기 어려운 전시 포스터 예시



©MoMA/TATE/Saint-Germain-en-Laye musée municipal

2) 비교적 전시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전시 포스터의 예시

[그림 25] 비교적 공연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전시 포스터 예시



©TATE, LACMA

전시시설 및 전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의 내용을 알리기

전시시설에서 제공하는 접근성에 대한 지원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안내하거나 프로그램 홍보물이나 내용에 표기해 놓고 자세히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홍보물에서 ‘접근성 지원’에 관한 정보는 시각장애인 또한 접근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며 기관 상황상 지원이 어려운 접근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접근성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 관람객을 ‘의식/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것만으로 전시공간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관람객이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 찾아올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 가능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표시하고, 그 밖의 가능한 지원이 있을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지원 서비스 안내

국립중앙박물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촉지도, 촉각 전시품 등 어떤 접근성 관련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내하고 있으며, 관람 지원 서비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안내도를 통해 서비스 지점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그림 26]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관람 지원 서비스 안내

**모두를 위한
관람 안내**

촉지도

촉각 전시품

점자 설명책

음성 해설

수어 영상

쉬운 정보

스마트 키오스크

**관람 지원 서비스
위치 찾기** 상설 전시관




**관람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촉지도
공간 정보를 손으로 만지며 알 수 있도록 만든 안내 지도.
중요한 정보는 재질을 다르게 하여 손으로 만졌을 때 입구, 출구, 주요 유물 위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오스크
사용자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점자 해드, 수어 인식 기능, 눈빛이 놓여 조절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람 지원

- 촉각전시품
- 스마트 키오스크

이용

- 엘리베이터
- 식당
- 남자 화장실
- 유아차 · 휠체어 대여소
- 출급 전화

안전

점자 설명책

수어영상

에스컬레이터

카페

여자 화장실

수유실

출급대기실

촉지도

계단

물 마시는곳

남자 장애인 화장실

물품보관소

자동심장충격기

쉬운 정보

경사로

주계 공간

여자 장애인 화장실

안내

음성 해설

어두운 조명

©국립중앙박물관

‘접근성 지원’ 항목에는 접근성에 관해 문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음성(전화) 또는 문자(카카오톡 등)로 의사소통이 모두 가능한 연락처를 준비하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기관에서 고려해 보지 못했던 접근성에 대해 장애 당사자가 먼저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전시에 대한 홍보 채널 고려사항

접근성에 대한 전시 홍보 시 장애 관련 방송이나 언론매체 등에 하는 방식 이외에 전시시설이 있는 지역의 장애 관련 기관이나 협회에 전시를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과 협회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각 장애 유형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 채널을 구축하여 전시의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좀 더 접근성 높은 프로그램의 기획이 가능합니다.

| [표 2] 홍보 관련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 |

종류	사이트명	링크주소
방송	복지TV WBC	http://www.iwbc.co.kr/
	KBS 제3라디오 방송	http://www.radio.kbs.co.kr/
	KBS ABLE	http://www.able.kbs.co.kr/
	MBC 시각장애인용	http://www.eyeye.imbc.com/
신문	에이블뉴스 ABLENEWS	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신문 WELFARE NEWS	https://www.welfarenews.net/
	함께걸음	https://www.cowalknews.co.kr/
	e장애인신문	http://www.ednews.co.kr/
협회/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농아인협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온라인(웹) 접근성

전시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장권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는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KWCA(한국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기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문제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UX/UI 디자인 등을 고려한 방식이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공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대신 할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하며, 웹사이트 내에 동영상이나 오디오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를 문자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움직임이 느린 사용자를 위해 시간 조절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에 당장 시간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전시 홍보 이미지만 올리는 게시물을 피하고 이미지와 함께 전시에 관한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글씨로 제공하면 더 좋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팝업창 등이 많이 생성되는 것은 정보를 얻는 데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지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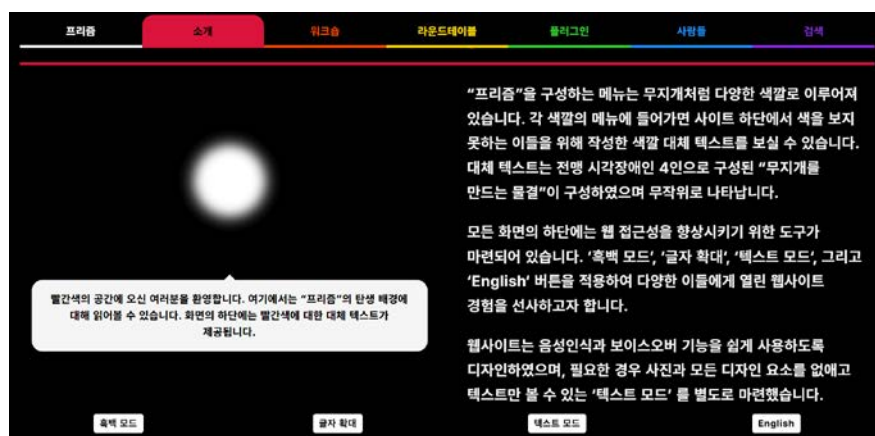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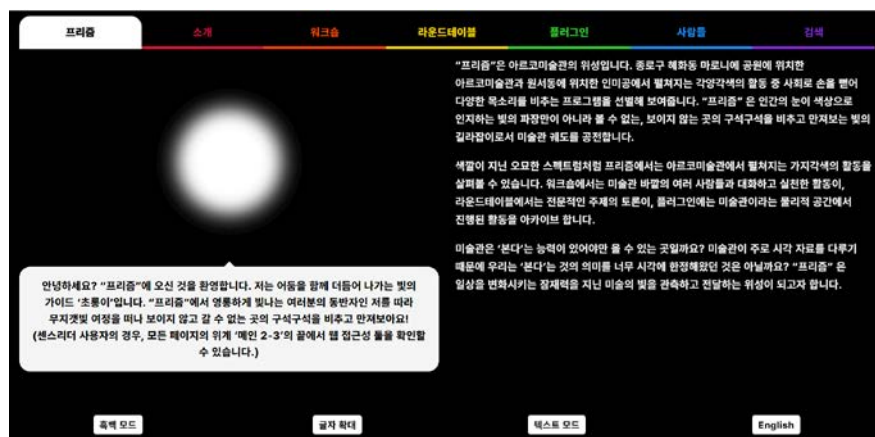
Ⅱ [표 3] 각 장애 유형 및 특징에 따른 보완 대책 종합 Ⅱ

장애 유형	특징		보완 대책
시각장애	전맹	모니터 속 내용 확인이 어려움	스크린리더
	저시력	모니터 사용이 일부 가능함	큰글씨/화면 확대/고대비
	색맹	특정 색을 구별하기 어려움	색상에만 의존하지 않기/고대비
청각장애		사운드 등을 청취하기 어려움	수화, 시각정보 제공
지체장애	상지장애	손을 사용하기 어려움	마우스 대체 방법, 키보드만 사용
	기타	기타 움직임이 어려움	충분한 시간 제공
발달장애		복잡한 용어, 어려운 용어의 이해가 어려움	쉬운 용어 및 인지가 쉬운 이미지 /아이콘 사용

사례 :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홈페이지 ‘모두를 위한 프리즘’

흑백모드, 글자 확대, 이미지를 제외한 텍스트 모드 전환, 영문 제공 등

[그림 27]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홈페이지 ‘모두를 위한 프리즘’ 발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사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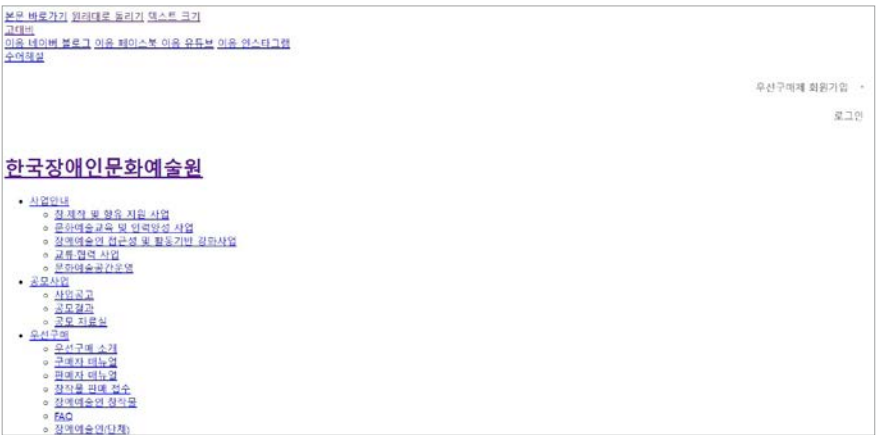
텍스트 모드, 글씨 확대, 고대비 모드 제공 및 홈페이지 수어해설 영상 제공 등

[그림 28]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일반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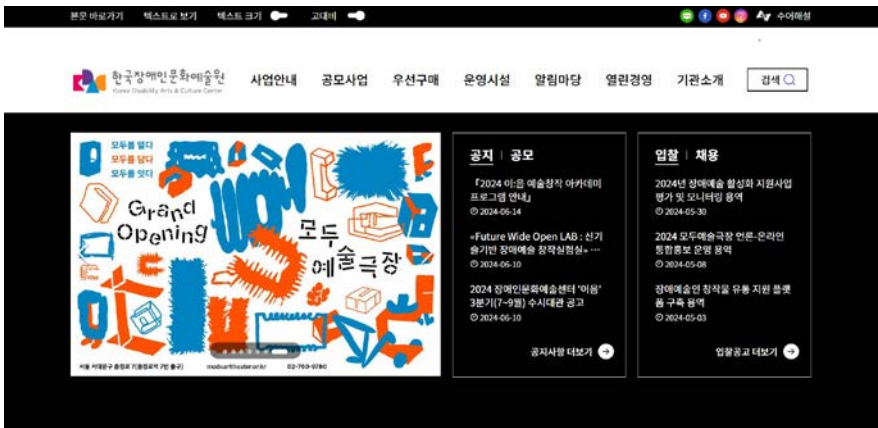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림 29]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텍스트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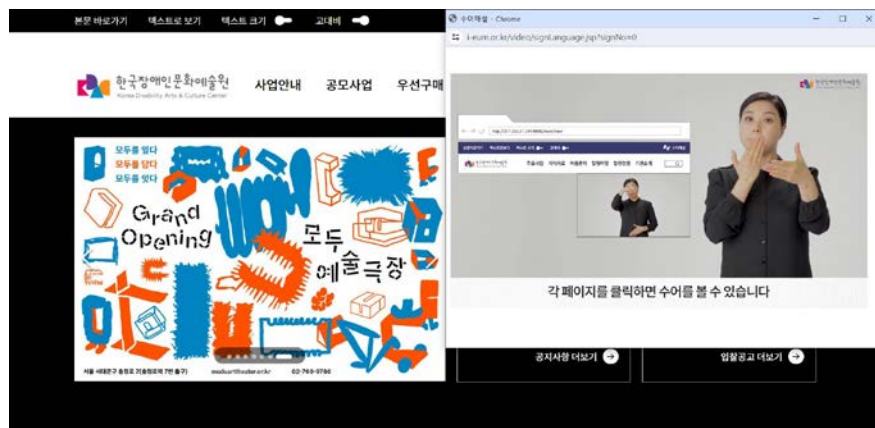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림 3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고대비 모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림 3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나. 전시 관련 출판물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왜 전시 출판에서 접근성이 필요한가요?

전시와 관련된 책의 출판 목적은 전시와 전시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책을 제작하는 출판 담당 학예사, 작가, 디자이너가 다양한 상황의 독자들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충족하는 콘텐츠와 디자인 요소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성 고려는 콘텐츠와 디자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더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출판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적으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소니언 접근성 출판 디자인 가이드라인(Smithsonian Guidelines for Accessible Publication Design)에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고려해야 할 접근성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출판에서 고려가 필요한 접근성 부분

출판물의 다양한 내용적 형식

노인과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의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읽기 쉬운 글로 작성하기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전맹인이나 시력이 낮아 글씨를 읽기 힘든 저시력자를 위한 점자 형식의 출판물 혹은 음성 변환 QR코드 삽입 고려하기

인쇄물을 읽기 어려운 상황의 관람객(시력 상실, 학습장애, 스스로 인쇄물을 넘기며 읽기 어려운 사람 등)을 위한 오디오 형식의 출판물 고려하기

출판물의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씨 사용 고려하기

한 페이지에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서체 사용 지양하기

디자인이 많이 가미된 글자체나 너무 굵고 너무 얇은 글씨체 사용은 지양하고 글자 간 간격, 문단 간격이 너무 좁은 것을 피하기, 밑줄같이 글자의 형태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 피하기

예를 들어, ㅁ과 ㅂ, ㅅ와 ㅆ, 3과 8등 잘 못 읽을 수 있는 특정 문자 및 숫자를 구별하기 좋은 폰트나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기*추천: 한글의 경우 고딕 계열의 폰트, 영문의 경우 세리프체 계열 폰트 등

이미지 위에 글씨를 넣거나 패턴이 많은 배경, 종이 색과 글자 색 구분이 어려운 디자인은 지양하기

글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는 것 피하기

글은 단어 위주로 줄 바꿈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길거나 너무 짧은 줄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우니 피하기

인쇄물 전반에 일관된 레이아웃 패턴을 적용하여 독자가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배려하기

복잡한 형태로 펴고 접을 수 있는 형태의 인쇄물보다 단순하게 펼쳐볼 수 있는 형태의 인쇄물 제작 고려하기

출판물의 용지와 관련한 고려사항

종이는 무광택을 사용하며 얇아서 페이지 반대쪽이 비치는 종이 사용은 지양하고 두께가 있어 종이를 넘기기가 수월한 것을 사용하기

결이 살아있는 종이(예: 한지)나 종이 질감이 거칠거나 표면에 요철 많은 종이는 인쇄된 글자를 읽을 때 왜곡이 생길 수 있어 사용 지양하기

다. 홍보마케팅 단계의 주요 인력 및 담당자

제일 주요하게 참여해야 하는 담당자는 전시기획자(학예사), 출판 담당자, 홍보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관련 디자이너 및 디자인 업체입니다.

전시기획자(학예사), 홍보마케팅 담당자는 전시에 대한 일정 등이 장애 관람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전시의 홍보 내용 구성, 홍보 채널 등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후 이를 이미지적으로 잘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디자이너 및 업체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5. 방문과 관람 : 접근성 전시 운영하기

가. 전시 감상의 단계와 주요 인력

관람객 전시 감상 여정에서 주요하게 참여해야 할 인력 및 담당자

전시가 시작된 이후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단계에서 제일 주요하게 참여해야 하는 담당자는 교육 담당자, 입장권 발권 및 안내원, 전시 스텝, 도슨트 등이 있습니다. 주로 관람객과 만나는 업무와 연관된 부서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장애 관람객의 여정에 따른 접근성 고려지점

[그림 32] 전시시설 관람객 여정의 단계



관람객의 여정에 따라 사전, 관람, 사후 단계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장애인 관람객이 미술관/박물관 방문을 고려하는 시점부터 집으로 갈 때까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관람객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관람객이 전시시설에 방문해서 귀가하기까지 얻어 갈 수 있는 경험을 여러 시각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점검해보는 과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진 공간과 시설 여건에서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과 장애 요소들을 점검하고 해소해 가는 과정이 곧 관람층을 넓혀가는 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과정에서 접근성을 촘촘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관람객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나. 사전단계 : 방문 결정부터 도착까지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볼까? 집에서 전시/공간 정보 얻기

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전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이런 정보들은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얻게 됩니다. 앞의 ‘홍보와 마케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온라인 정보에 제일 취약한 대상인 시각장애 관람객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전달이 더 수월할까를 고민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전시의 제목, 기간, 장소 등이 잘 전달되는 상황인지, 혹은 문자로 표기되어 큰 글자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본 전시의 접근성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안내되었는지? 동시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설명이 되었는지?

접근성에 관해 문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음성(전화) 또는 문자(카카오톡 등)로 의사소통이 모두 가능한 연락처를 준비하였으며 안내하였는지? 등

일부 관람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장소에 방문하는 일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방문 전 머릿속으로 여정과 공간을 그려보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전시와 프로그램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시설 주변 대중교통 지점으로부터 전시공간에 들어서기까지 접근경로 및 전시장 내부 환경(어두운/시끄러운 등)을 표시한 접근성 지도를 작성하여 미리 관람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공간까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까?

장애인콜택시 등, 이용객을 위한 택시 하차 장소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까?

공간에 장애인 주차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까? 없다면 인근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전시장의 환경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까?

집에서 미술관/박물관까지 (또는 미술관/박물관에서 집까지)

각자의 공간에서 전시공간까지 오는 다양한 장애인 관람객들의 상황을 전부 미리 알고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통수단에 따라 몇 가지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미술관/박물관 인근의 지하철역이나 정류장에 도착하는 관람객 가운데는, 전시공간까지 이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각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는 데 능숙하며 필요한 경우 역무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낯선 길이라면 출구부터 이동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박물관 출입구와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도보로 수 분 정도라면, 지하철역에서 미술관/박물관까지 보행으로 안내하는 이동지원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반드시 안내원의 이동지원이 아니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를 상세히 해설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이나 일반 택시를 이용해 미술관/박물관에 도착할 때는 미술관/박물관 입구에서부터 전시장까지 진·출입에 방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미리 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ex. 경사로가 없이 계단/턱이 있는 경우 임시 경사로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인력지원으로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 고려 등)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 주차구역에서 미술관/박물관 출입문까지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놓여있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다면 진출입로에서 가까운 곳을 장애인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재한 미술관/박물관의 경우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고, 그 주차장에서 시설까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시시설에 진입까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람객이 대중교통에서, 주차장에서 올 때 불편한 지점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전시시설까지 점자블록 등이 잘 되어있는지, 지하철의 이동 약자

엘리베이터는 몇 번 출구에 있는지, 거기서부터 어떻게 도착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건물 내부의 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출입구, 진입로, 카페와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 공원과 벤치 휴식공간 등 이용자가 전시설 주변에 체류하며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장애인 관람객 그룹을 초청해 시설 이용에 실제적인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점검/검수를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사전점검을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 그룹의 사전점검 후 참여자에 대한 서면조사 혹은 인터뷰를 통해 방문 소감,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시설의 구성원과 공유하여 보완 방법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 참여 공간탐색 워크숍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장애예술가 워크숍 프로그램

‘2017 모두의 미술관’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탐색 워크숍

2017년 진행된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협력 운영 프로그램으로 장애예술가 5인을 중심으로 장애/비장애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조별로 나누어 홈페이지 방문부터 전시 감상, 교육 참여 등 미술관 경험의 전 과정을 탐색하는 공간탐색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경험을 기반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사물함과 티켓부스, 전시장 간 동선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이니지 등 보다 실제적인 보완 지점들을 찾아냈으며, 공간뿐 아니라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보완 방식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림 33] 2017 모두의 미술관 공간탐색 개요 및 운영 다이어그램

공간 탐색 가이드라인

1. 가상의 관람객 설정

- ▷ 성별, 나이, 방문 목적, 관심사, 장애 유무 및 유형, 동반인 유무 등 가상의 인물 설정
- ▷ 조 구성원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2. 관람객 미술관 경험 시나리오 설계

- ▷ 초기 단계 : 관람 전 관람객이 경험 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정보 탐색
- ▷ 진행 단계 : 방문 경험에 기반한 미술관 공간 및 서비스 탐색
- ▷ 사후 단계 : 설문조사 진행 등

공간 탐색 프로그램

1회차

- ▷ 사전 워크숍 진행 : 프로그램 소개 및 조별 구성, 사전 의견 수렴 및 가상 관람객 설계

2회차

- ▷ 라운드 테이블 진행, 장애예술가와 함께 미술관 공간 탐색, 탐색 결과 공유

사후 진행

- ▷ 공간 탐색 과정 및 결과물 자료집 제작, 미술관 내 부서간 내용 공유 등

※ 전시를 찾는 이동 약자의 사전단계 경험 예시

관람객 특성: A씨,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인 ‘근성’이와 함께 다님

A씨가 친구를 통해 접근성이 지원되는 전시인 ‘모두를 위한 전시’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관련하여 사전에 더 정보를 얻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은 시각장애인이며 보조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감상 보조 수단을 준비해 놓아 방문해 전시를 감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나, 미술관이 오래되어 건물 자체에 물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지하철역에서 건물로 오기까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안내한 후, 지하철역에서부터 미술관까지 오는 부분에 대한 이동지원의 제공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A씨는 이동지원이 가능하다면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방문일정에 대한 계획을 미술관에 전달하고, 당일 지하철역 도착 후 해당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미술관 직원과 00지하철역 0번 출구 앞에서 만나 이동지원을 받습니다.

미술관까지 이동하며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라 미술관에 방문하게 되었는지, 사전안내 부분에서 보완될 지점들은 없는지 등을 이야기하며(사용자 경험에 대한 간소화된 피드백을 이때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도착, 매표소까지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귀가 시 도움이 필요하면 매표소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고 안내합니다.

관람객 특성: B씨, 지체장애인으로 동력 보조 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사용자

‘모두를 위한 전시’에 B씨가 자가용으로 곧 도착할 예정인데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남아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미술관에는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2칸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나,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 3개 정도의 단층 계단과 수동 미닫이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고 도착 후 추가연락을 주시면 안내직원을 보내 도와드리겠습니다고 말씀드립니다.

B씨가 주차 후 전화를 하자 미술관 안내직원은 B씨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편한지를 묻고, 안내받은 대로 휠체어가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등지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후 B씨가 약간 등을 기대는 정도의 기울기를 준 후 한 칸씩 계단을 오릅니다. 미술관 진입 후 매표소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며, 이후 귀가 시 매표소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후, 미술관 내에 간이 이동식 경사로를 제작하여 해당 불편함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보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 전시공간 안내의 항목 예시

1. 전시시설 구성

전체 시설부지의 크기, 야외 공간 및 건물 개수와 배치 모습 설명
 전시가 열리는 건물 특징의 설명
 전시시설 정문으로부터 전시관별 위치와 입구 찾는 길 설명
 시설정보 : 주차 안내, 엘리베이터 위치와 운행층, 층별 화장실 위치와 장애인 화장실 유무 설명. 안내견에 대한 편의시설/서비스 등 장애인용 주차장 여부
 출입구 종류에 대한 안내 (수동문, 자동문 여부 등)
 물품 대여 : 간이 의자(사양), 휠체어(사양), 유모차 등 대여 서비스 제공 여부
 전시시설 내 휴식공간, 식당과 편의시설 위치 및 제공 메뉴

2. 전시 운영

휴관일 (전시기간 중 휴관일 포함)
 운영시간 : 입장 및 퇴장 시간
 전시관별 예상 관람 소요 시간, 관람객이 붐비는 시간대
 요금 : 장애인, 연령대, 단체 등 할인정보

3. 대중교통 이용

셔틀버스 운영 여부, 운행 시간과 노선정보, 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 탑승 문의 방법
 지하철 및 버스 운행정보, 역과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거리
 진출 도로 정보

※ 접근성 관련 정보 수집 예시

아래 질문을 통해 접근성 지원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시설 내 또는 주차장/지하철역에서 전시장까지 이동지원이 필요합니까?

(제공하는 접근성 지원 도구 안내 후) 안내 및 프로그램 참여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없습니까?

전동휠체어 사용자이십니까 수동휠체어 사용자이십니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견(보조견)을 동반하십니까?

접근성에 관한 문의 사항 또는 요청 사항이 있다면

아래 빈칸에 기재하시거나 000-000-0000으로 연락주세요.

다. 관람단계 : 전시 관람부터 건물을 나서기까지

출입구 및 매표소

전시시설에 도착한 관람객은 주요 출입구를 지나 매표소(티켓박스)로 가서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받고 전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출입구에 계단은 없나요?

출입문이 너무 무겁지는 않나요?

출입구부터 매표소까지의 동선은 간단한가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표소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경로 표시 (점자블록 등)가 있나요?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블라드나 전동 킥보드 등이 통행 경로를 가로막고 있지 않나요?

매표소에서 안내 및 티켓 발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나요?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립뷰(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마스크를 추천합니다.
립뷰 마스크는 청각장애로 입 모양을 읽어야 하는 사람의 의사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안내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입말 카드 형태나 필담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림 34] 모두예술극장 문자 소통 서비스 사례



©메타기획컨설팅

[그림 35] 국립극장, 입말카드 안내 사례



©국립극장

전시장 입장 및 관람하기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의 점검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을 안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상을 돕는 전시 디자인의 접근성 요소/도구 외에도 원활한 안내와 전시공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수단들이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다양한 관객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쉬운 글과 큰 글씨로 작성된 안내자료 및 작품 명제표

접근성 안내 픽토그램 및 그래픽 사인물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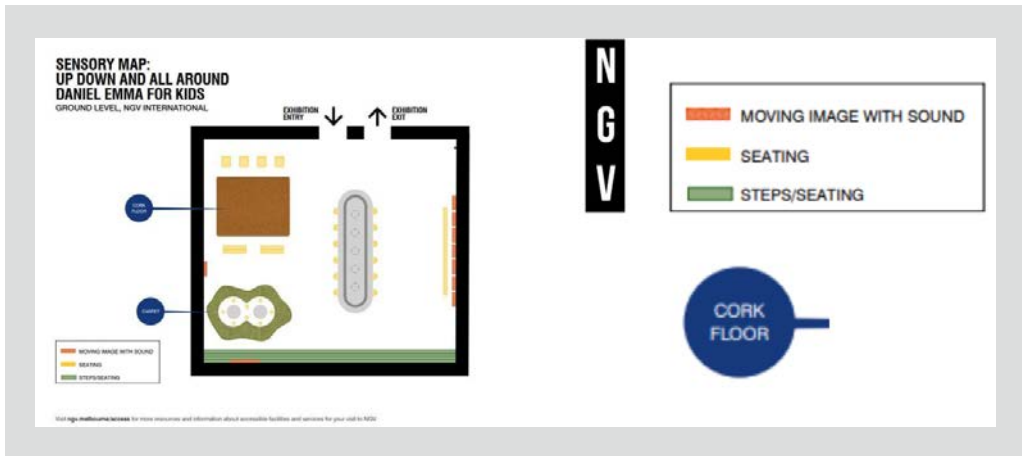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가이드, 음성안내 내비게이션

현장에서 상영되는 수어 영상

영상 자료의 경우 자막 등

전시 내부공간에 대한 감각지도(Sensory Map)를 작성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전시공간의 출입구 및 구획별 전시물들의 위치,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간결하게 표시해 전체 전시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상하도록 합니다. 이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현장 안내자가 관람객을 안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 36]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NGV)의 전시회 감각지도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전시 관람하기

전시 현장에서 전시 스태프들은 건물 입장으로부터 전시장 관람 동선의 진입과 퇴장 등이 원활한지, 관람 지원 도구와 안내자료가 적당한 위치에서 충분히 제공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의 정도와 개인적인 선호가 달라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보조도구와 상황을 모두 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람객의 장애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장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도구를 아무리 갖춘다고 해도 가장 좋은 서비스는 관람객이 겪는 불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안내자가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만약 감상에 대한 보조도구 마련이 어려울 경우 대면 서비스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장애인 관람객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의료/안전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사각에서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관람객들이 항상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으로 대비하고, 관람객의 장애 유형에 따른 특징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시 안내 스태프의 경우 임시직으로 모집되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시기획자, 교육 담당자 및 시설 관리자와 경험 많은 전시 스태프를 중심으로 자주 회의하고 주요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전시장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 쪽에 사인물 등 입장 경로를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여러 개의 전시장을 사용하는 전시일 경우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 해줄 수 있는 사인물이 필요합니다.

전시장 내부의 동선, 전시 작품 배치, 촉각 작품 등 위치와 활용정보, 전시장 편의시설 정보 등을 자세하게 담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장애인 관람객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관람객 등 다양한 관람객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의 전시장 관람단계 경험 예시

관람객 특성: A씨,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인 ‘근성’이와 함께 다님

A씨는 이동안내를 통해 전시시설 진입 후 매표소 위치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일 낮에 방문하다 보니 다행히도 ‘근성’이와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매표소의 안내직원이 전시는 총 3개의 관에서 진행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1관의 위치는 오른쪽, 2시 방향으로 10m를 이동하면 있으며 각 관마다 입구와 출구 쪽 코너에 전시 운영요원이 있으니 필요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본 전시는 음성해설을 제공과 주요 5개의 작품의 경우 촉각으로 만져 볼 수 있게 한 감상 지원 도구가 관별로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음성해설의 경우 별도의 기기가 아닌 핸드폰으로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다고 안내 및 설치해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핸드폰에 꽂아 음성해설을 시작하였고 전시장 1관을 어떻게 가는지를 안내해 주어 안심되었습니다.

1관에 진입하여 음성해설을 찬찬히 듣고 작품이 주는 느낌을 충분히 감상하고 있습니다. 촉각 작품이 놓여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전시 운영요원이 와서 본인은 누구인지 설명하고, 상황을 알려주며 팔꿈치를 가볍게 잡고 촉각 감상물 앞으로 데려가 줍니다. 촉각 감상물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음성해설에서 안내해 주는 방향을 따라 2관으로 이동합니다.

평일 낮이다 보니 어린이와 함께 온 관람객들을 마주칩니다. ‘근성’이와 함께 다니니 아이들이 호기심에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를 본 전시 운영요원이 A씨 스스로가 나서기 전에 아이들을 주의시킵니다. ‘안내

보조조건으로 전시장에 있습니다. 특히 주인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니 갑작스럽게 뛰어오거나, 보조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하는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라고 안내해 줍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 합니다. 2관 출구 쪽에 구석에 있는 운영요원에게 물어봅니다. 3관 가는 길에 있는 화장실을 안내해 주는데, 처음 오는 곳이다 보니 공간 구조가 헷갈리는 상황이라 전시 운영요원이 입구 쪽 요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앞까지 안내해 주며, 3관의 위치까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3관으로 이동하여 전시를 마저 봅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출구 쪽 요원이 아트숍과 카페테리아 등의 위치를 안내해 주어 필요시 이용하라고 말해줍니다.

전시를 감상 후 카페테리아에서 음료를 주문합니다. 카페 직원이 대표 메뉴가 무엇이고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고, 제공하는 음료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카페의 대표 메뉴를 주문하였고, 자리에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주문 후 착석하였고, 곧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즐긴 후 귀가하려고 합니다.

올 때 안내받았던 것처럼 매표소로 찾아가서 귀가를 위한 이동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동 지원 전에 간단한 설문을 요청합니다. 직원이 물어보고 그에 대한 짧은 답을 달라고 합니다. 더 나은 접근성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으며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 같은지', '전시 감상에 있어 음성해설과 촉각 전시물은 어땠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즐거운 경험이었기에 성실히 응답해 주었고, '근성'처럼 안내 보조건을 대동할 시 물을 주는 공간 등에 대한 안내나 고려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상시로 마련할 필요는 없고 너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나 화장실 근처 등에서 주어도 되는지 부분에 대한 고려 정도도 충분할 것 같다고 추가로 이야기해 줍니다.

피드백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다음 전시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하고, 이동지원을 도와줄 직원이 도착하여 지하철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라. 사후단계 : 전시에 대한 경험 나누기와 재방문

전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재방문까지

전시시설에 방문한 장애인 관람객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전시기획자, 고객관리 담당자 등 전시시설에서 일하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장애인 사회와 소통해 본 경험이 적으면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두렵고 어려운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관람객의 소감을 듣고 지속적인 방문이 이어지도록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시시설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장애 공동체와 커뮤니티에 관람객의 경험이 공유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예술을 활용한 전시문화에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부분 등 심리적 접근성이 낮아 방문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시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장애 커뮤니티와의 관계 맺음을 시도하고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장을 경험한 장애 관람객의 경험을 관람객이 속한 커뮤니티 등의 연결고리로 확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6. 피드백

가. 왜 피드백을 받아야 하나요?

각각의 모든 전시 방문자들의 의견은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 관람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의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1. 질적 진단과 향상

무엇보다 먼저 작품과 전시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가, 큐레이터 등은 어떤 부분은 잘 되었거나 그러지 못했고, 또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작품과 전시 자체의 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접근성과 포용성 진단과 향상

장소부터 전시물까지 얼마나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지를 알고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전시 방법론과 환경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과 교육적 가치 진단과 향상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 전시공간은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접근성 등 서로 다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성과 포괄성을 실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관점을 통한 예술 감상과 몰입 경험에 대한 청취(의견 수렴)는 전시기획자와 예술가들에게도 새롭거나 확장된 예술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예술 작품과 전시공간이 더 다양한 예술적/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합니다.

4. 공동체의 지지와 참여 진단과 향상

지역사회와 장애를 포함한 다양성 공동체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이나 공간 등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 자주 방문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5. 디자인 개선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향상

실제 이해당사자를 통해 안내 표지판부터 작품 안내와 해설, 전시 구성과 공간 배치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더 다양하고 매력적인 전시와 더 나은 시설과 경험을 제공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할까요?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경험을 만들어가도록, 의미 있는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1. 다양성 반영

피드백 프로세스에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포함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접근 가능한 피드백 디자인

쉬운 글 :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언어로 질문(지)을 만듭니다.

의견 수렴 방식 : 기존의 온라인 양식, 종이 설문지에서 대체 형식(예: 큰 활자, 점자, 이미지 기반 설문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음성 사서함 방식을 이용한 구두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방법론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구체적 질문

접근성 경험 : 접근성(ex. 경사로, 안내, 수어 해설, 자막, 촉각 전시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애(어려움, 불편함) 요소 : 전시 관람(여정) 중 장애물(어려움, 불편함; ex. 불분명한 표지판, 부족하거나 불균등한 해설 등)이 있었는지 질의합니다.

시설의 직원에 대한 경험 : 직접적으로 만난 전시시설 직원의 대응과 대처에 대한 경험에 대해 질의합니다.

개선을 위한 제안 : 관람객들에게 접근성 및 예술 경험 향상 방법(예: 추가적인 감각적 경험, 더 자세한 안내와 해설 등)을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4. 전시 및 콘텐츠 평가

콘텐츠의 질 : 전시의 내용, 타당성 및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진솔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표현의 대표성과 대상화 : 작품과 전시의 다양성, 포괄성 및 정체성의 관점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접근성 : 도슨트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등 투어 및 이벤트의 접근/포괄성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 경험 : 감상과 체험의 경험이 어떻게 좋았는지 몰입감을 느꼈는지 등을 확인해봅니다.

5. 전시 디자인, 기술, 환경

시청각 자료 : 시청각 요소(ex. 동영상, 오디오 가이드, 수어 영상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인터랙티브 : 인터랙티브 요소들(ex.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앱 등)의 실제 사용성과 유용성을 확인합니다.

경로 : 전시공간 내 이동의 용이성(ex. 휠체어 사용 등을 위해 다른 경로를 이용하거나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야 하지는 않는지, 점자 보도블록이나 안내 등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고르게 되어있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설 : 전시 작품의 눈높이와 설명 자료들의 높이는 적당했는지, 난간, 손잡이의 위치와 적절성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조명 : 조명이 모든 관람객에게 적합했는지(ex.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았는지, 조명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낮은 시선에서 액자의 반사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등) 확인합니다.

안전 : 화재 등 비상 상황 대응 및 대피 절차에 대한 인지 및 개선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6. 추가 설명과 소수 의견

방문자와 관람객들이 전시 및 접근성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다른 경험과 감각의 소유자들이 가진 관점과 통찰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한 피드백은 설문지나 인터뷰의 답 이외에도 많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하는 질문, 참가자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신체언어, 행동, 회피 반응, 이해와 관련된 끄덕임, 눈빛과 얼굴 표정, 참여 동기와 적극적 관심 표현 등도 모두 참가자로부터의 피드백입니다.

※ 접근성 피드백 설문지 구성 예시

• 전시 정보:

전시 이름:

날짜:

장소:

• 관람객 정보:

(특별한 연구와 통계처리를 위한 이유 이외에, 단순한 접근성에 관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개인의 장애 등에 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까지 굳이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이름 / 연령 (선택적 기입과 수집):

2. 장애 유형 (중복장애의 경우 모두 선택):

☐ 지체장애 (예: 휠체어 사용, 뇌병변 장애인 등)

☐ 시각장애 (예: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인 등)

☐ 청각장애 (예: 농인, 청각장애인, 중증 청각손실, 인공와우 사용 등)

☐ 발달 또는 정신장애 (예: 인지/지적 장애, 자폐스펙트럼 등)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 (예: 내부 장기 장애 등)

• 접근성 및 포용성:

1. 전시의 전체적인 접근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잘 모르겠음

2. 특별히 접근성에 관해 눈에 띈 것이 있었나요? (예: 수어해설, 안내 등)

☐ 예 (구체적으로 기재): _____

☐ 아니오

3. 전시 관련 접근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경험했나요?

☐ 예 (구체적으로 설명): _____

☐ 아니오

4. 더 나은 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떤 개선 사항이 있을까요?

• 전시 경험:

1. 전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잘 모르겠음

2. 작품/전시에 다양성과 포괄성, 장애정체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셨나요?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3. 전시가 즐거움이나 예술적 경험이 되었나요?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 추가의견:

전시 및 전시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써주세요.

※ (아동, 발달 장애인 등을 고려한) 전시기획 접근성 피드백 인터뷰의 질문 예시

전시 설명(ex. 작품 설명, 해설, 리플렛 등)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이 제일 어려웠나요?

작품이나 프로그램(도슨트 프로그램, 교육 내용, 자료, 구성, 시간) 중 좋았던(흥미가 가고 재미있었던) 것이 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좋았나요?

작품이나 프로그램(도슨트 프로그램, 교육 내용, 자료, 구성, 시간) 중 재미없거나 지루했던 것이 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강사(도슨트, 큐레이터, 선생님)의 수업(방식, 내용)에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좀 더 흥미가 가거나 예술적(재밌거나, 와-하거나, 멋지다, 몽클했다 등)이라고 느낀 부분이 있을까요?

있었다면, 작품 중 마음에 들거나, 혹시 '아, 나 같다. 나 닮았다'라고 느껴진 것이 있었나요?

혹시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이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이것(안내판, 쉬운 말, 인형 등 제공해 줬던 자료)이 있어서 좋았다 싶은 것이 있을까요?

혹시 소외되는 느낌을 받거나, 같이 할 수 없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더 보고 싶고, 배우거나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같이 하고 싶거나, 알려주거나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7. 참고 자료

접근성 전시 디자인 체크리스트 (번역본)

출처 : MANY VOICES MAKING CHOICES: MUSEUM AUDIENCES WITH DISABILITIES / AUSTRALIAN MUSEUM, NATIONAL MUSEUM OF AUSTRALIA의 Accessible Arts exhibition design checklist

| [표 4] 전시 디자인 접근성 체크리스트 |

질문	Yes	No
전시를 위한 물리적/공간적 환경		
Q1.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시공간에 접근할 수 있나요?		
Q2. 공간의 어떤 부분이 접근할 수 없다면, 작품을 볼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공하셨나요? (예: 작품의 사진 복제나 비디오 등)		
Q3. 리셉션 영역과 안내데스크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높이에 있나요? (1,000mm 이하인가요?)		
Q4. 전시 전체를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준비되어 있나요? (폭은 1,100mm 이상인가요?)		
Q5. 벽에서 돌출된 위험한 물체를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나요?		
Q6. 소음 수준이 합리적인가요?		
Q7.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공간을 탐색하는 데 혼란스럽지 않게 하셨나요?		
Q8. 공간 전체에 조명을 일관되게 사용했나요?		
Q9. 만약 조명 수준이 변한다면, 조명의 변화가 점진적이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나요?		
Q10. 관람 공간에 팔걸이가 있는 휴식용 의자가 있나요? (의자는 바닥으로부터 500mm 이상의 높이여야 합니다)		
작품의 전시와 설치		
Q1. 벽에 부착된 작품들이 바닥으로부터 1,220mm에서 1,675mm 사이의 높이에 걸려 있나요?		
Q2. 전시진열장이나 테이블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915mm 이하인가요? (전시 표면까지의 높이)		

질문	Yes	No
Q3. 전시진열장과 테이블 아래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최소 750mm의 높이, 900mm의 너비, 400mm의 깊이의 무릎 공간이 있나요?		
Q4. 전시진열장에 사용된 유리는 비반사 유리인가요?		
Q5. 전시된 작품과 전시진열장의 표면이나 뒷판 사이에 대조가 있나요? (예: 명확한 색상 대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Q6. 작은 작품의 경우 전시진열장 앞쪽에 배치하셨나요?		
Q7. 매우 작은 작품일 경우, 작품의 복제품(사진 혹은 그림)을 제공하셨나요?		
Q8. 작품이 받침대(좌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받침대의 높이가 1,000mm 이하인가요?		
Q9. 전시공간 내에서 전시진열장, 테이블, 받침대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나요? (통로의 최소 너비 1,100mm)		
Q10. 받침대, 전시진열장 등에 위험성이 표시되었나요? (촉각 바닥 표시기를 사용하여)		

라벨 & 텍스트

Q1. 주요 패널과 서문 텍스트가 24포인트 이상인가요?		
Q2. 라벨 텍스트가 18포인트 이상인가요?		
Q3. 모든 텍스트가 단순한 산세리프 글꼴인가요?		
Q4. 텍스트가 왼쪽 정렬되어 있나요?		
Q5. 텍스트가 단색 배경에 인쇄되어 있나요?		
Q6. 텍스트와 배경 대비가 최소 70%인가요?		
Q7. 모든 라벨과 텍스트에 쉬운 언어를 사용하셨나요?		
Q8. 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쉬운 언어 버전을 제공하셨나요?		
Q9. 라벨/텍스트의 오디오 버전이 제공되나요?		
Q10. 점자 라벨/텍스트도 제공하나요?		
Q11. 방문객이 모든 라벨/텍스트에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라벨은 전시진열장 뒤쪽에 부착되지 않아야 합니다)		
Q12. 라벨/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명이 있나요?		
Q13. 라벨/텍스트의 배치가 전시공간 전체에 일관되어 있나요?		

질문	Yes	No
Q14. 라벨/텍스트가 바닥으로부터 1,220mm에서 1,675mm 사이의 높이에 배치되어 있나요?		
Q15. 야외 라벨/텍스트는 가독성을 돕기 위해 검은색 또는 어두운 배경에 흰색 또는 밝은 글씨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시 인쇄물

Q1. 모든 인쇄물이 접근성을 위한 인쇄 지침을 충족하나요?		
Q2. 쉬운 언어로 인쇄물을 제작하셨나요?		
Q3. 큰글씨 인쇄물을 제공하나요?		
Q4. 점자 인쇄물을 제공하나요?		
Q5. 인쇄물의 오디오 버전이 제공되나요?		
Q6. 대체 형식 인쇄물을 방문객이 구매하거나 가져갈 수 있나요?		

전시 내용

Q1. 장애인에 대한 묘사나 설명에 적절한 언어/이미지를 사용하나요?		
Q2. 전시에 적절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주제나 내용을 포함하셨나요? (예: 사회나 역사적 맥락 등을 주제로 할 경우)		
Q3. 장애인 커뮤니티 및 장애인이 전시 개발에 참여하였나요?		

시청각 자료

Q1.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시청각 자료를 볼 수 있나요?		
Q2.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호 작용하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Q3. 시청각 자료를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나요?		
Q4. 시청각 자료에 자막이 있나요?		
Q5. 시청각 자료 사용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고 따르기 쉽게 설명되나요?		
Q6. 시청각 자료에서 사용된 오디오가 시각적 정보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나요?		

전시시설 내 극장 및 오디오토리움

Q1. 극장/강당에 휠체어를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객석 공간이 있나요?		
Q2.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동반자와 함께 앉을 수 있나요?		

질문	Yes	No
Q3. 극장/강당에 청각 보조 시스템(예: 청각 루프)이 설치되어 있나요?		
Q4. 모든 시청각 자료에 자막을 제공하나요?		
Q5. 모든 공식 행사에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나요?		

접근성 서비스

Q1. 장애인을 위한 촉각 체험/투어 기회를 제공하나요?		
Q2. 촉각 체험/투어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나요?		
Q3. 촉각 체험 기회가 전시 경험을 향상시키고 전시 이해를 돕나요?		
Q4. 점자 정보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나요?		
Q5. 전시에 대한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나요? 이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개발되었나요?		
Q6. 수어통역이 포함된 투어를 제공하나요?		
Q7. 다양한 감각 체험이 가능한 투어를 제공하나요? (예: 소리, 향기)		
Q8. 지적 장애인이 전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나요?		
Q9. 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미지) 등을 사용하나요?		
Q10. 전시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명확히 표시하고 안내하고 있나요? (예: 섬광등, 연기 효과, 큰 소음 등)		
Q11.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여 전시장의 접근성 서비스 및 전시에 대한 검수(컨설팅)를 진행했나요?		
Q12. 시민 대상(교육 등)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나요?		
Q13. 아웃리치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었나요?		
Q14. 모든 직원이 장애인 인식/감수성 훈련(교육)을 받았나요?		
Q15. 장애인 접근 서비스 담당 직원이 있나요?		
Q16. 장애인 접근 서비스 담당 직원이 모든 홍보 및 프로모션 자료에 명확히 안내되고 있나요?		
Q17. 전시시설의 접근성 서비스 및 시설이 모든 홍보/프로모션 자료에 안내되어 있나요?		

법적 기준과 높은 접근성의 확보

전시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관련 법령들은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건축물 피난, 주차장법 등 다양한 법령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관련 법령 내용에서 그 기본적인 원칙과 최소의 수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제시된 법적 기준만 지킨다고 접근성의 모든 걸 갖출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현행 법령의 기준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공공의 전시시설을 신축한다면 결과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기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적절한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BF인증이라고 부르는 이 단계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법령의 기준을 넘어서는 각 상황에 따라 접근성 높은 공간의 구성을 심사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법령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BF인증을 거쳤더라도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관련한 법령의 기준과 준수는 높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각 공간의 상황, 여건에 맞추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가야 가능한 최상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5] 전시시설 접근성 관련 법령 |

구분	법령	내용
시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시시설의 규모에 따른 법령적용 기준 판단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3조)
		전시시설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 정의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4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5조2)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8조의2 피난 안전 구역의 설치기준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 구획 기준)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6.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문화체육관광부)	
행위 (관람 고용 포함)	1.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	내용
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p>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구분	법령	내용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색인

접근성 관련

가독성	46, 51, 93	작품 라벨	46
관람객의 여정	11, 65	작품 설치	14, 22, 44, 45
교통	14, 66, 67, 68, 71	전시 관람/감상	12, 20, 26, 29, 31, 36, 65, 69, 70, 72, 76, 83
눈높이	44, 84	전시연계	34
레이아웃	60, 61	전시 포스터	52
물리적	9, 12, 31, 39, 70, 91, 95	접자	20, 21, 31, 32, 41, 60, 67, 72, 82, 84, 92, 93, 94
법적 기준	95	접근성 지원	20, 31, 53, 54, 66, 72
색 사용	47	정보 얻기	66
수어	26, 31, 33, 58, 59, 73, 83, 85	조명	33, 47, 48, 84, 91, 92
쉬운 글/쉬운 자료	22, 26, 27, 28, 31, 60, 73, 82	조용한 공간	42, 48
예산	11, 19, 20, 31, 36, 56	청각 자료	83
온라인	21, 26, 51, 53, 56, 66, 82	체크리스트	10, 12, 13, 14, 91, 103
음성/음성해설	21, 22, 26, 31, 32, 51, 54, 56, 60, 66, 73, 75, 76, 82	촉각 자료	23, 24, 25
음향	14, 48	출입구	14, 39, 47, 67, 68, 72, 73, 74
인력	11, 12, 13, 15, 22, 31, 36, 48, 61, 65, 67, 96	출판물	60, 61
인쇄물/인쇄	26, 60, 61, 92, 93	큰글씨/글자	20, 26, 32, 46, 47, 56, 57, 60, 61, 66
입말카드	73	타이포그래피	51, 60, 61
입구/입장	14, 29, 33, 39, 40, 41, 43, 47, 56, 65, 67, 68, 71, 72, 73, 74, 75, 76, 84, 95	피드백	11, 12, 15, 30, 70, 76, 77, 81, 82, 84, 85, 86
자막 해설	26	필답	72
		홍보 채널	55, 61

장애유형 관련

발달장애	26, 27, 28, 42, 43, 47, 48, 56	중복장애	20, 29, 85
시각장애	20, 21, 22, 25, 30, 31, 32, 33, 34, 35, 41, 44, 45, 46, 47, 48, 51, 53, 56, 66, 67, 70, 72, 73, 75, 76, 77, 85, 91, 94	지체장애	39, 56, 70, 85
		청각장애	26, 31, 48, 56, 72, 85

그림목차

- [그림 1]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박물관 정의 10
- [그림 2]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언젠가 누구에게나’ 전시 점자 리플렛, 2020 22
- [그림 3] 보이스아이 코드와 점자로 구성된 2023년 궁중문화축전 초대장 22
- [그림 4]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촉각 전시자료 24
- [그림 5] 서울시립미술관 ‘이야기의 모형’ 촉각 자료 24
- [그림 6] 환기미술관 촉각 전시자료 25
- [그림 7]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후각 전시자료 25
- [그림 8] 아텐버러 아트 센터, 감각상자 28
- [그림 9] 서울시립미술관, 쉬운 글 작품 해설(2022) 28
- [그림 10] 헨리 포드 박물관, 접근성 프로그램 운영 30
- [그림 11]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A), 터치 투어 32
- [그림 12] 환기미술관, 뮤지엄보이스 시각장애인 감상 교육 33
- [그림 13] 환기미술관, 시각장애인 감상 프로그램 34
- [그림 14]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시각장애인 접근성 가이드 투어 34
- [그림 15]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그림 속 주인공 돼 보기 35
- [그림 16]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 구성 상세표준도 40
- [그림 17]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이동 시 필요공간 41
- [그림 18] 국립중앙박물관 ‘기증1실’에 조성된 휴식공간 43
- [그림 19]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마음보듬소’ 43
- [그림 20] 스미스소니언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각장애인 인지 확보 45
- [그림 21] 작품 설치에 대한 고려 45
- [그림 22] 전시물 설명사인의 글꼴 두께 및 글자 최소 크기 예시 47
- [그림 23] 타이포그래피와 아웃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Exhibitions for All,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 51
- [그림 24] 한눈에 알아보고 읽기 어려운 포스터 예시 52
- [그림 25] 비교적 공연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포스터 예시 52
- [그림 26]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관람 지원 서비스 안내 54
- [그림 27]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홈페이지 ‘모두를 위한 프리즘’ 발췌 57
- [그림 28]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일반 모드 58
- [그림 29]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텍스트 모드 58
- [그림 3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고대비 모드 58
- [그림 3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 59
- [그림 32] 전시시설 관람객 여정의 단계 65

- [그림 33] 2017 모두의 미술관 공간탐색 개요 및 운영 다이어그램 69
- [그림 34] 모두예술극장 문자 소통 서비스 사례 73
- [그림 35] 국립극장, 입말카드 안내 사례 73
- [그림 36]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NGV)의 전시회 감각지도 74

표목차

- [표 1] 전시시설과 전시를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14
- [표 2] 홍보 관련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 55
- [표 3] 각 장애 유형 및 특징에 따른 보완 대책 종합 56
- [표 4] 전시 디자인 접근성 체크리스트 91
- [표 5] 전시시설 접근성 관련 법령 96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행인 김형희

사업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총괄 신상미 예술지원부 부장
기획편집 정지윤 예술지원부 대리

사업수행 메타기획컨설팅
연구총괄 오성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연구책임 김영익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연구PM 한수지 메타기획컨설팅 팀장
연구 강재훈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엄태은 메타기획컨설팅 협력 컨설턴트
정영석 피알원 시니어 컨설턴트

협력기획/공동집필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김원영 공연예술가/작가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장애 관련 감수
시각장애 부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청각장애 부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 부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청각장애 부문 헬렌켈러센터
발달장애 부문 함께웃는재단

디자인 그라핀
편집 김현식, 조성익
인쇄/제책 에프 스튜디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2
02-760-9735
<https://www.kdac.or.kr>

ISBN 979-11-986552-3-3
ISBN 979-11-986552-2-6 (세트)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